

나에게 음악은 첫사랑이다.

정하석

음악은 꿈이 없던 나에게 처음으로 다가 온 설렘이었다. 난생 처음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그 꿈을 위해 능동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군대를 다녀온 뒤 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그 이상을 위해 노력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즐거움과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에 난 그것에 몰입 할 수 있었고 매일이 행복했다. 나는 내 자신이 그 꿈을 향해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 멈추기 힘들 정도로 달려서 결국 그 꿈에 닿길 원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곳에서 나를 메이저에 속하는 뮤지션들과 일을 하는 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해 달리던 나는 꿈과 현실의 갭을 줄이지 못하고 음악을 '첫사랑'이라 표현하면서 경제학부 에세이 대회를 위해 글을 쓰고 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첫사랑에 실패하고 평생 또는 오랜 기간 그 첫사랑을 품에 안고 살아간다. 나에게 음악이란 그런 의미의 '첫사랑'인 것이다.

나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는 보통의 3학년보다 나이가 많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이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내 또래의 친구들에 비하면 조금은 더디게 가고 있다. 처음으로 찾아 온 사랑을 열병처럼 앓고 난 뒤 나는 갈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그 꿈을 저버려야 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흘러간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깨지고 망가져 가면서 험한 바위산을 굴러 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아 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지금의 이 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다. 사실 처음 편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시점에서는 편입은 그 때의 나에게 명분 없는 목적이었다. 음악이라는 꿈이 끝을 맺은 그 때 그 곳에 또 다른 꿈이 자라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그 꿈을 위해 다시 내 자신을 부추길 명분이 생긴 것이다. 지금의 나에게는 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분 좋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지금 나의 꿈은 단지 꿈이 아니라 목표라고 정의하고 그 목표를 이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꿈과 목표의 중간쯤 그 어딘가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를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의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원래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 내 친구들 등 나의 지인들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20대가 그러하듯이 입시, 취업이라는 눈앞의 목표만 존재할 뿐 그 목표의 명분도 명확치 않고 그 명분 없는 목표조차 흐릿하기 일쑤였다. 나는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가 나를 그들과 다르게 만들어주었다. 처음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뮤지컬을 제작하고 계신 삼촌께서 나에게 젊었을 때 실패를 해보아야 나중에 뼈곁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했던 그 때의 내가 너무나도 기특하다. 내 또래에 비해서 지금의 나는 조금 느린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 또래 친구들과의 속도 차이로 인해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과의 괴리가 생긴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친구들과도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은 같은 궤도에 연착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내가 시행착오를 겪는 그 과정에서 나의 길을 함께 해 온 사람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나는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지금 에리카 캠퍼스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학우들의 학교선배라고 하기엔 민망한 구석이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형으로서 오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성공한 사람에게서 보다는 실패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더 많다. 물론, 나는 내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친구들이나 나의 부모님은 지금도 종종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 당연히 나의 대답은 하나이다. 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도전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를 수도 있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하여 나는 분명히 그 목표에 도달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 번의 시행착오로 인해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저학년인 학우들, 취업을 앞둔 학우들 모두 그저 시대에 편승하지 말고 본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한다.

지금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나에게는 라디오pd라는 새로운 꿈이 자리 잡았다. 나의 첫사랑이었던 음악과 같은 맥락을 하는 꿈이다. 나에게 있어서 두번째 사랑도 음악이 된 것이다. 나는 이 꿈을 꿈에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그 꿈을 매일 그럴 것이다. 난 꿈을 꾸는 지금 이 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다.